

우리협회는 지난 4월 22일 건축설계분야 발전과 건축자재기술 향상을 위해 에스와이패널(주)(대표 홍영돈)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해·재난 등의 긴급 구조 시나 사회봉사 활동 시 재능기부 및 물품기증 등의 방법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회 주최 행사 또는 간행물 등에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협찬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협회가 참가하는 국제행사 등에 있어 공동참여 및 공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와이패널(주)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학생멤버리 참가학생 지원 등 사회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직원 대상 4월 직무교육 실시



우리협회는 지난 4월 25일 건축사회관 2층 교육장에서 '4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에는 협회 김영수 회장과 권병조 상근부회장 및 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회장·직원과의 대화에서 김영수 회장은 "자기 계발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발전하는 직원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회장과와의 대화 후에는 이어서 '내 삶의 성공계획 셀프리더쉽'이란 주제로 자기계발 강연이 진행됐다.

우리협회는 직원들의 직무발전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축계 소식

서울대학교 김광우 교수, 대한건축학회 회장 취임



서울대 건축학과 김광우 교수(62세)가 오는 4월 26일(토)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되는 '2014년도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에서 제3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월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김 회장은 서울대 학생담당부학장,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2014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특별전형시험 시행

2014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특별전형시험이 오는 5월 18일(일) 홍익대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160분이며,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4과목으로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또 함께 치러지는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계획, 건축구조 2과목으로 역시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이번 시험에 접수한 인원은 약 7,047명으로 지난해 2013년도보다 약 200여 명 정도가 감소했다.

2014 임정의 건축사진아카데미 개설

1999년 제1회 청암건축사진아카데미로 시작된 이후 지난해 잠시 중단됐던 건축사진 강좌가 건축인들의 요청으로 다시 재개된다.

특히 이번 '2014 임정의 건축사진아카데미'에서는 임준영 사진가와 황효철 건축사진가의 디지털 건축사진에 대한 특강이 보장됐다. 강의 기간은 오는 6월 5일부터 8월 21일 까지 총 12주이며, 강의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시30분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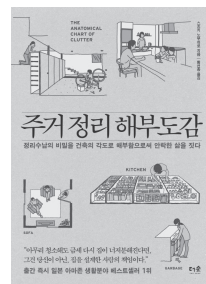
건축사진가 임정의의 조부 임석제는 우리나라 사진의 리얼리즘을 개척한 사진작가이고, 부친 임인식은 한국전쟁의 종군사진작가였다. 아들 임준영은 역시 현대적인 사진가로서, 4대가 사진가이다. 임정의는 신문, 방송 보도사진기자로 지내다가 김수근 건축사와의 만남으로 공간지 사진부장을 역임했고, 1978년 부터 서울 충무로에 '청암건축사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청암사진연구소 02-444-7088, imfoto@naver.com

시간안내

주거 정리 해부도감 : 정리수납의 비밀을 건축의 각도로 해부함으로써 인락한 삶을 짓다

스즈키 노부히로 저 | 황선중 역 | 136쪽 | 더숲



이 책의 저자인 스즈키 노부히로는 '어떻게 집을 지으면 덜 어질러질까' 하는 주택 설계의 근본에 해당하는 문제를 놓고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 간의 감론을박을 지켜본 끝에 주거 '생활'을 바라보는 심도 있는 통찰을 하기에 이른다.

'좋은 집'을 짓는 기준은 건축사들 모두 저마다 다르다. 누군가는 미관을 최우선 가치로, 누군가는 비용 문제를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하지만 저자에게 좋은 집이란, 일상생활이 불편함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쉽게 어질러지지 않고 정리가 잘 되는 집이란 어떤 것인지,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공간과 불필요한 공간은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그의 건축설계 방식인 것이다. 저자는 일본 아마존 건축분야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주거해부도감』의 저자 마스다 스스무와 함께 요코하마 건축그룹 'area045'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